

이상기온으로 자주 발생하는 벌마늘... 예방법은?

# 봄 비료 주기 · 물 관리에 신경써야

웃거름 4월 중순 이내 2회 공급, 물꼬 정비 수분량 조절

최근 이상기온과 지나친 비료 공급, 토양 수분에 의해 마늘 2차 생장 현상인 일명 '벌마늘'이 자주 발생해 작년의 경우 농가 피해가 컸던 가운데 올해도 벌마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봄 비료 주기와 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마늘에 2차 생장이 일어나면 각각의 마늘쪽에서 발생한 잎과 꽃대로 마늘 줄기가 부풀어 오르거나 줄기 옆 부분이 터지면서 잎이 빠져나오며, 보통 6~9개인 마늘쪽(인편)이 2~4개씩 더 분화돼 크기는 2g 이하로 작아지고, 마늘쪽은 18~27쪽이 된다. 마늘 크기가 작아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씨마늘(종구로도 사용할 수 없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

2차 생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겨울(1~3월)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기상조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재배 면에서는 밑거름과 웃거름을 너무 많이 늦게까지 주면 생장이 왕성해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4월 이후 물대기를 자주 하거나, 씨마늘을 저온 저장했을 때, 크기가 큰 씨마늘(7g 이상)을 사용할 때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웃거름을 너무 늦지 않게 주고 토양 수분량은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한지형 마늘은 4월 중순 이내 웃거름을 2회 정도 줘야 하며, 비료 양은 1회당 요소 기준으로 1,000㎡(300평)당 17kg 이내가 적당하다. 또한 4~5월에 비가 많이 예보되면 물꼬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도로나 옆 건물 등에서 흐른 물이 마늘밭에 고이거나, 물대기 후 비가 계속해서 오는 경우 토양에 수분이 많아져 주의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



2차 생장 현상인 일명 '벌마늘'이 발생한 마늘.

소연연구소 조명철 소장은 "지난해에는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서산 지역의 30~40%에서 2차 생장이 발생해 농가 피해가 컸다"며 "올해도 이상기온 등

으로 2차 생장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꼬를 정비하고, 웃거름은 표준량에 맞춰 너무 늦지 않게 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12일 전북 혁신도시 인권경영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인권 감수성 제고 시책 발굴"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인권경영협의회 정기회의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12일 2022년 제1차 전북 혁신도시 인권경영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이 회의체는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4개 기관 등을 포함한 총 5개 기관 간의 연대·협력과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시책 발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7월 구성됐으며,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와 함께 기관 간 협력 등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권업무 추진방향과 공동협력과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인권분야 주요 시책 등을 상호 공유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이야기' 캠페인 및 '인권경영협의회 공동 인권백서 제작' 등 올해 공동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전라북도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체는 지난해 지역사회 인권증진 문화 확산을 위한 에코백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생의 노사문화 이야기 캠페인을 추진한 계획이다. /최대희기자



(사진 왼쪽부터) ㈜울릭스 국경희 부사장 윤양섭 전주상의 회장, 고성옥 ㈜휴비스 전주공장장, 이승복 전주상의 사무처장

## 상공의 날 맞아 '산자부장관상' 도내 2개 기업 표창

휴비스 고성옥 전주공장장 · 울릭스 안중옥 대표이사 수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양섭)는 12일 상공의 날을 맞아 상의회관 회관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도내 2개 기업에 전달했다.

상공의 날은 우리 상공업의 진흥과 상공인의 의욕 고취를 위해 1973년 제정돼 1974년 첫 상공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49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주)휴비스 고성옥 전주공장장과 (주)울릭스 안중옥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고성옥 (주)휴비스 전주공장장은 생산설비와 자산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울산공장의 전주공장 통합결정에 따라 지난 2019~2020년 설비이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 회사 경쟁력 향상과 고용인력 증가에 노력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안중옥 (주)울릭스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가동중단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속에서도 기존 고용된 인력들을 유지하며 한

계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상생의 노력 결과 중소기업의 편견을 깨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색지수(Ra99)를 갖는 LED광원 개발에 성공해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정착 및 동반성장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윤양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헌신해 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대희 기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도입기업 모집

지원방식 두가지 유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된다. 삼성과 LG전자는 지난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관기관은 지난 1월부터 모집 중에 있으며(6월 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

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 전용)로 나뉜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4,200만원(기초), 1억2,000만원(고도화1), 2억4,000만원(고도화2)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000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기초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작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IS 임팩트,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 원 출연금으로 전국 약 1천개사(전북지역 19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하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관기관 모집은 6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는 총 1,00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희 기자

## 도내 우수상품, 전북 생생장터서 최대 40% 할인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전북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생생장터 프로모션을 13일 전북생생장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12일 경진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서 첫 도입된 생생장터 전북 상품 중 엄선된 우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특가 판매행사이다. 생생장터는 매월 2주차, 3주차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2회씩 고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4월은 1차 13일, 2차 20일에 진행된다. 4월 1차 생생장터에서는 태음한돈 생삼겹살 목살 세트, 태인명장 연잎 청국장 덕두영농조합 신동진 쌀이 진행되며, 2차 생생장터는 전북생생장터 히트상품인 삼덕새마을영농조합 못난이 옥수수과 팜조아 파프리카를 판매한다. 생생장터 프로모션은 가격적인 외에도 무료배송으로 진행돼 소비자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생장터 외에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전 상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제휴카드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0% 청구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 전북은행, 2분기 경영전략회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임원 및 영업전담,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를 초빙해 2022년 국내외 경제 산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는 1분기 경영 및 영업성과와 2분기 경영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 내용은 올해 중점추진전략인 ▲수익중심 질적 성장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경영효율성 증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신 성장동력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전략 추진과 지속성장 기반을 견고히 해나갈 계획을 논의했으며, ▲금리 상승기 및 코로나 팬데믹 출구전략 ▲가계대출부담 완화 등에 대해 영업 전략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통해 가치와 이상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남아 있는 분기에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 국민연금,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종합대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2일 한국 HRD협회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이 시상식은 민간주도로 1985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기업 교육기관 등에게 이 분야 최고의 상을 시상하는 자리로, 이번 수상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재육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2021년 신입직원 교육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온택트(On-tact) 기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교육 효과도 제고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 중심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훈련과 개인별 역량강화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글로벌 리더 연금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 사업추진 우수농·축협 시상식

도내 92곳 중 19곳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2일 농업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사업추진 우수농·축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상호금융대상 ▲종합합적평가 ▲종합경영평가 대상 3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통합 개최했으며, 전북 도내 총 92개 농·축협 중 19개 농·축협(중복수상 4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호금융대상은 농·축협 금융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농·축협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로, 전북농협은 2021년 평가에서 도내 92개 농·축협 중 19.8%에 해당하는 18개 농·축협이 수상대상으로 선정돼 전국도지역의 농·축협 수 대비 우수사무소 비중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최우수상에는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 순창농협(조합장 신재식),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종)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 동계농협(조합장 양

준섭),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 소안농협(조합장 유해광), 신대안농협(조합장 김성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신재집),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전북지리산농협(조합장 이인기),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 태안농협(조합장 한상곤)이 차지했다.

또한 종합합적평가는 전국 1,118개 농·축협 중 신용·경제·교육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축협을 시상하는 제도로, 전북에서는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종합경영평가 경영우수조합장상은 순창축협(조합장 고창인)이 수상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축협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거둔 19개 농·축협 조합장님과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다"며 "올해도 농업·농촌·농업인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